

서울말 ㄱ/ㄱ의 세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최혜원* 황연신** 이호영**
국립국어연구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Study of Seoul Dialect ㄱ/ㄱ's Variation According to the Generation

Hyewon Choe* Yeonsin Hwang** Hoyoung Lee**

The 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e*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 chihw@korean.go.kr hys74@snu.ac.kr hylee@snu.ac.kr

Abstract

The results of this thesis show that Seoul dialect speakers neutralized /ε/ and /e/ to /E/ about 80% and the old aged generations pronounced /H/ and /k/ as it is than the young aged generations's.

I. 서론

본 논문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서 독립 음소로 취급되고 있는 모음 /H/와 /k/가 현실에서 어떻게 발음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세대별로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2년도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실시했던 '표준 발음 실태 조사'를 통해 수집·기록되었던 단어 목록 중 본 논문에서는 /H/와 /k/를 포함한 단어만 한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본 논문은 실제 대화체를 이용하지 않고 선정된 단어를 문장 속에 포함하여 제보자들이 자연스럽게 낭독하도록 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II. 연구 방법

본 조사의 피실험자 수는 총 210명으로서, 출생지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인 화자에 한정하였고 부모 또한 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선정하였다. 제보자의 성별과 연령을 70대를 제외하고는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하였다.

| 연령별 | | 성별 | | 출생지 | |
|-----|-----|----|------|-----|------|
| 20대 | 36명 | 남 | 104명 | 서울 | 132명 |
| 30대 | 42명 | 여 | 106명 | 경기 | 72명 |
| 40대 | 43명 | | | | |
| 50대 | 42명 | | | | |
| 60대 | 41명 | | | | |
| 70대 | 6명 | | | | |

표 1 피실험자 인적 사항

조사 단어가 포함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 번호 | 단어 | 조사 문장 |
|----|------|-------------------------|
| 1 | 태 | 그는 어떤 옷을 입어도 태가 나지 않는다. |
| 2 | 때 |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는 법이다. |
| 3 | 개 | 그는 개를 8마리나 키우고 있다. |
| 4 | 매 | 매가 짹짹 병아리를 낚아채 갔다. |
| 5 | 애정 | 그는 애정 관계가 복잡하다. |
| 6 | 우애 | 저 집 형제는 우애가 좋다. |
| 7 | 애매하다 | 그는 태도가 언제나 애매하다. |
| 8 | 깨다 | 그는 잠에서 깨어 시계를 봤다. |
| 9 | 고래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 10 | 개나리 | 봄에는 개나리가 많이 핀다. |

표 2 /H/ 음가 조사 문장

| 번호 | 단어 | 조사 문장 |
|----|------|-----------------------------------|
| 11 | 태 | 요즘은 태가 없는 안경이 유행이다. |
| 12 | 때 | 풀밭에 양들이 때를 지어 노닐고 있다. |
| 13 | 게 | 서해안 개펄에는 게가 많이 잡힌다. |
| 14 | 메 | 장정 서넛이 떡을 메로 치고 있다. |
| 15 | 에누리 | 만 원에 파는 것을 오천 원에 팔라니 에누리가 너무 심하다. |
| 16 | 엔간하다 | 엔간해서는 그 사람을 설득하기 힘들다. |
| 17 | 매마르다 | 오랜 가뭄으로 논밭이 바짝 매말랐다. |
| 18 | 누에 | 뽕잎을 따서 누에를 먹었다. |
| 19 | 베틀 | 할머니는 베틀을 짜서 생계를 유지하셨다. |
| 20 | 휴게실 | 그는 휴게실에 가서 담배를 피웠다. |
| 21 | 수레 | 볏짚을 수레에 실어 옮겼다. |
| 22 | 걸레 | 방바닥을 걸레로 깨끗이 훑었다. |
| 23 | 헤어지다 | 나는 일행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 |

표 3 /개/ 음가 조사 문장

녹음기는 MD(Panasonic SJ-MR200)를 사용하였으며 마이크는 SONY사의 핀 마이크를 사용하여 모노로 녹음하였다. 읽기는 보통 속도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녹음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련 번호를 읽은 후 단독 단어를 읽고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읽었다. 다만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 '태'와 '태', '때'와 '때', '개'와 '게', '매'와 '메'는 두 개의 단어를 연달아 읽을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작성한 후 읽게 하였다. 단독 단어와 조사 문장 내 포함된 단어의 발음이 다른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읽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발음으로 읽도록 유도하였다. 그럼에도 다른 발음으로 읽었을 때에는 단독 단어 발음을 일차 기준으로 선정하여 전사하였다. 이렇게 녹음된 단어를 청취 훈련을 받은 국립국어연구원 분석요원 2명이 총 4회 반복 청취를 통해 정밀 전사를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 결과 '표준 발음법'에서 독립 음소로 취급되고 있는 모음 'ㅐ'와 'ㅑ'는 현실 발음에서 음가의 구별이 희미해져 중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음절의 위치, 선행 자음의 종류, 조사 단어의 개별적 특성 등에 의해서도 각각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최소 대립쌍의 비교를 통해 열린 모음과 닫힌 모음으로 발음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ɛ] | [E] | [e] | 기타 |
|---|------------|-------------|------------|----------|
| 태 | 50(23.81%) | 160(76.19%) | 0 | 0 |
| 태 | 0 | 151(71.90%) | 59(28.10%) | 0 |
| 때 | 46(21.90%) | 164(78.10%) | 0 | 0 |
| 때 | 0 | 156(74.29%) | 54(25.71%) | 0 |
| 개 | 59(28.10%) | 151(71.90%) | 0 | 0 |
| 게 | 0 | 129(61.43%) | 77(36.67%) | 4(1.90%) |
| 매 | 60(28.57%) | 150(71.43%) | 0 | 0 |
| 메 | 0 | 145(69.05%) | 66(30.95%) | 0 |

표 4 단어별 음가 비교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의 경우, 평균 70% 이상, 최소 61% 이상을 중화하여 발음하였다. 이 중 '게'는 닫힌 모음의 음가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단어로, 경기 방언인 [kwe]로 발음하는 경우를 더하여 36.67%가 닫힌 모음을 유지하여 발음해서 중화된 정도가 가장 적게 나왔다. '게'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의 발음은 대략 70% 이상이 중화된 경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단어 중화된 경우의 평균치인 대략 80% 정도보다 10% 정도 낮게 나온 수치이다. 즉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는 그 고유 음가를 비교적 더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전체 단어의 발음 경향을 평균낸 값을 비교한 결과이다.¹⁾

| | [ɛ] | [E] | [e] | 기타 | 총합 |
|-----|-----------------|------------------|-----------------|---------------|----------------|
| /ㅐ/ | 407 (19.38%) | 1669 (79.43%) | 0 | 25 (1.19%) | 2100 (100%) |
| /ㅑ/ | 0 | 2255 (82.60%) | 443 (16.23%) | 32 (1.17%) | 2739 (100%) |

표 5 단어 전체 음가의 평균값 비교

전체 단어를 평균낸 값을 살펴보면 대략 80% 정도가 중화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표준 발음법'에서 독립 음소로 취급되는 있는 모음 /ㅐ/와 /ㅑ/는 현실 발음에서 대부분 구별되어 발음되고 있는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열린 모음 /ㅐ/보다는 닫힌 모음 /ㅑ/에서 중화된 수치가 더 높았는데 이는 /ㅑ/를 발음할 때 충분히 입을 좁혀 발음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세대별로 모음의 음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이 때 극명한 차이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세대는 30대와 60대이다. 30대가 중화된 모음 [E]를 가장 많이 발음하였고, 60대가 닫힌 모음과 열린 모음의 구

1) /ㅐ/는 [ɛ]로 /ㅑ/는 [e]로 중화된 모음은 [E]로 전사하였다.

분을 가장 잘 하였다. 40대는 20·30대의 발음과 50·60·70대의 발음을 구분해 주는 분수령의 역할을 하였다. 이는 40대를 기준으로 노년층으로 갈수록 중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거나 열린 모음과 닫힌 모음을 제대로 발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50대 이상에서 음소 고유의 발음이 비교적 많이 보존되어 있는 반면 40대 이하에서는 음소 고유의 발음 구별이 점점 사라져 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꺀/의 경우에 40대는 50·60·70대의 발음보다는 20·30대의 발음과 좀 더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고²⁾ /꺈/의 경우에는 20·30대의 발음보다는 50·60·70대의 발음과 좀 더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조사하기 전 중화된 발음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세대가 20대일 거라고 예상하였지만 예상외로 중화된 발음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세대는 30대였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20대 화자들 가운데에 어학을 전공하는 고학력자들이 다수 포함되었기에 30대보다는 열린 모음과 닫힌 모음의 음가에 대한 예비 지식이 있어 나온 결과이지 자연스러운 연령별 추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60대는 본 조사에서 닫힌 모음과 열린 모음을 가장 잘 구분하는 세대로 나왔다. 실제로 70대가 60대보다 열린 모음과 닫힌 모음을 더 잘 구분하였지만 70대 화자들 6명밖에 조사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많은 70대 화자의 발음을 조사한다면 좀 더 명확한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된다.

다음 표는 '꺀'와 '꺈' 음가를 세대별로 나타낸 표이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화된 모음으로 발음하는 비율이 장년층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열린 모음과 닫힌 모음을 제 음가대로 발음하는 비율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
|----|-----|-----------------|-----------------|-----------------|-----------------|-----------------|----------------|
| 꺀 | [e] | 39 (4.72%) | 38 (3.93%) | 113 (11.43%) | 177 (18.32%) | 221 (23.46%) | 62 (44.93%) |
| | [E] | 769 (92.87%) | 909 (94.09%) | 826 (83.52%) | 744 (77.02%) | 654 (69.35%) | 69 (50%) |
| | [e] | 1 (0.12%) | 0 | 3 (0.3%) | 4 (0.41%) | 2 (0.21%) | 0 |
| | 기 | 19 (2.29%) | 19 (1.98%) | 47 (4.75%) | 41 (4.24%) | 66 (6.99%) | 7 (5.07%) |
| | 타 | | | | | | |
| 총합 | 828 | 966 | 989 | 966 | 943 | 138 | |

표 6 /꺀/의 세대별 변화 비교

2) 닫힌 모음 [꺀]의 경우 40대는 8.25% 정도만이 제 음가대로 발음하였는데 50대에서 갑자기 22.94%로 늘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
|----|-----|-----------------|-----------------|-----------------|-----------------|-----------------|----------------|
| 꺈 | [E] | 701 (88.51%) | 885 (95.78%) | 832 (87.95%) | 677 (73.27%) | 620 (68.74%) | 84 (63.54%) |
| | [e] | 73 (9.22%) | 24 (2.59%) | 78 (8.25%) | 212 (22.94%) | 225 (24.94%) | 44 (33.33%) |
| | 기 | 18 (2.27%) | 15 (1.63%) | 36 (3.8%) | 35 (3.79%) | 57 (6.32%) | 4 (3.02%) |
| | 타 | | | | | | |
| 총합 | 792 | 924 | 946 | 924 | 902 | 132 | |

표 7 /꺈/의 세대별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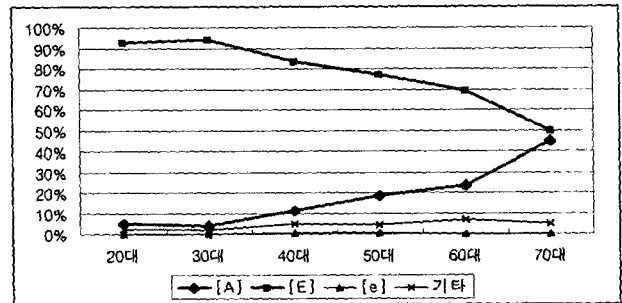


그림 1 /꺀/의 세대별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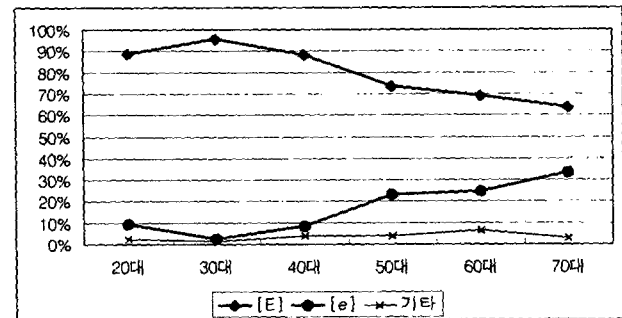


그림 2 /꺈/의 세대별 변화 비교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모음 /꺀/와 /꺈/가 현실에서 어떻게 발음되고 있는지, 세대별로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모음 /꺀/와 /꺈/는 약 80% 정도가 고유 음가대로 발음하지 않고 중화하여 발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꺈/가 /꺀/보다 중화시키는 정도가 더 컸다. 이는 입을 좁히지 않고 발음하려는 젊은층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장년층으로 갈수록 고유 음가를 더 많이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역시 25%를 넘지 않는 비율³⁾로서 중화시켜 발음하는 비율보다는 적은 수치였다.

3) 60대의 경우가 그러하다. 70대의 경우에는 35%-45% 정도가 고유어 음가대로 발음하였다.

참고문헌

- [1] 최혜원 표준 발음 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2002
- [2] 이호영 국어 음성학, 태학사, 1999
- [3] 이현복 한국어의 표준발음, 교유과학사, 1989
- [4] 이현복 “방송 언어와 표준 발음”, 새국어생활 3-1, 1993